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6. 인간적 애(愛)에 관해서 ㉑

자기의 의소는 자기뿐

붓다가 늘 강조하면서 설명한 무아(無我)의 가르침이란 과연 자기를 사랑하면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도 소중한다는 것과 전혀 상반(相反)되는 가르침이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잘 알려진 <법구경(法句經)>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우리들에게 있어 영영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 될 것이다.

자기의 의소(依所)는 자기뿐이다.

다른 것에 어떠한 의소가 있겠는가. 자기가 능히 조어(調御)되었을 때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소(依所)를 얻는 것이다.

비록 어떠한 큰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며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리라.

자기의 의무를 알면서

언제나 자기의 의무에 전심전력하라.

만일 자기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능히 자기를 지키라.

현명한 사람은 밤의 삼분(三分)가운데, 일분(一分)은 각성(覺醒)하여야 하리라.

꿈곰이 검토해 보면 붓다는 결코 인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우며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라는 점을 부정한 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스승의 가르침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인간 그 자체였다.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인간적 애(愛)를 이 스승은 결코 압살(壓殺)해 버리라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에서 출발하여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길을 이 스승은 설법하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이 스승의 가르침의 전체를 이해해야 하리라 하고 본다.

앞에서 지적한 <애자(愛者)>라는 이름의 경전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제 그 개요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도 또한 붓다가 기원정사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오늘날도 또 프라세나짓드는, 자기 소견(所見)을 말하면서 이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렸다.

“세존이시여, 나는 홀로 조용히 앉아서 홀연히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건

행위에 있어서 악을 행하며, 말에 있어서 악어(惡語)를 말하며, 그 뜻에 있어서 악한 생각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나는 자기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다 해도 그는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행하는 바를 스스로에 대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건 그 행위에 있어서 선한 행위를 하며 그 말에 있어서 선한 말을 하며, 그 뜻에 있어서 착한 생각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나는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다 해도, 그는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행하는 바를 자기에게 대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였다면, 붓다는 또 다시 그것에 첨가(添加)할 아무 것도 없었다. 오늘날 붓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구의(身口意)에 있어서 선업(善業)에 힘쓰는 자만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왕을 위해서 하나의 계(偈)로써 설법하였다.

자기를 사랑해야 할 것으로 알았다면, 자기를 악(惡)에 결부(結付)하지 말지니라.

악한 업(業)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안락(安樂)은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무아(無我)와 인간애(人間愛)의 긍정

불교는 본래 인간의 문제를 그 근본으로 한다. 기독교가 ‘신(神)의 종교’라고 불릴 수 있다면 불교는 바로 ‘인간의 종교’라고 불러져야 할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불교의 이해에 있어서 이 근본을 저버리고 중요한 점에 있어서 오해에 빠진 일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욕망의 문제에 있어서도 종래의 불교이해는 자주 그 진상을 그르치고 있었다. 붓다에 있어서는 욕망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무기(無記)였다. 이 스승은 다만 그 악한 행위를 없애며 욕망을 정리하며 경작(耕作)하여 보다 좋은 인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제가 수행자들의 참선 모습. 인간의 존재를 탐구한 불교는 집착이 인간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지적했으며, 무아의 가르침을 설했다. 그 가르침은 우리들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열어준다.

후세의 불교 이해에 있어서 그 가르침은 가끔 인간 욕망을 송두리째 없애는 가르침인 것처럼 오해되었다. 이 오해도 또한 ‘인간의 종교’로서 근본을 그릇되게 해석한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인간적 애(無)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붓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 그 인간적 애를 없애라고 설교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거기에서 출발해서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친 사람이다. 물론 이 스승은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설법하였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는 인간적 애의 포기를 가르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스승의 참뜻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명백히 하는 데 있었다. 그

는 투철한 눈으로써 인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착해서는 안 될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였다. 그것이 무아의 가르침인 것이며,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들은 비로소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무아의 가르침과 인간적 애(愛)의 긍정은 조금도 모순되는 것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며 붓다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으로서는 비로소 무아의 가르침의 참뜻에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뜻에서 나는 그러한 인간적 애의 문제를 말하는 여러 경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각도에서 그 참뜻을 음미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佛법이 국가에 도움되는가

문 지금 그대가 증거한 가르침이 갖 추어졌으니 이로써 윤회를 초탈하여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학문인 즉 율기(律記)와, 그 도와 그 가르침이 지리(地理)에 무엇이 관여되는가. 전조(前朝)에 왕씨(王氏)가 창업(創業)할 때 그 백성을 수고롭게 하며, 재물을 허비하여 국가의 폐단을 지으면서 구구히 수천백(數千百)의 가람(伽藍)을 건립하여 비보(裨補)가 된다 호칭하였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불교 가운데도 이 같은 이치가 있는가.

답 진실로 이러한 이치가 있다. 부처님의 법은 지극히 자비로우며 있어 사랑할만 하며, 지극히 착함 있어 표창할만 하며, 지극히 신령하여 위엄스러움이 있으며, 지극히 싱그러움이 있어 공경할만 하며, 지극히 오묘함이 있어 함부로 하지 못하며, 지극히 밝음이 있어 속이지 못한다. 이것을 삼계 각 황(皇)의 가르침이라 말하는데, 그 명령이 이르는 곳에 유명(幽明)이 복종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전조(前朝)에 왕씨(王氏)가 통합(統合)하여 다행히 성모(聖母)인 도선국사(道詵國師)의 유족(遺囑)을 받들고, 동중(洞中)에서 여철(如拙)의 지휘(指揮)를 맡겨 받아 부처님의 법을 빌려 약속을 삼고 산천의 통양(滄滄)한 땅을 치료하였다. 부족한 자는 보완해 주고, 지나친 자는 억제하며, 달리는 자는 그치게 하며, 배반하는 자는 불러들이며, 해치는 자는 막아 주고, 다투는 자는 금지하며, 훌륭한 자는 수립(樹立)하고, 길(吉)한 자는 무릇인가. 불교 가운데도 이 같은 이치가 있는가.

비보한다는 것은 병을 치료함을 말함이고, 선찰(禪)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함을 말함이다. 병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생민(生民)의 복이고 국가의 이익이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병은 그치지 않았는데 악을 문득 버린다면 국토의 강영(康寧)함을 보존하지 못할까 하니, 그 비보(裨補)를 설치한 까닭에 가서는 아

부처님 법은 지극히 자비롭고 공경할만 하다 삼계 각황의 가르침을 누가 모독할 수 있나

거니 누가 감히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기를 “이 경을 따라서 설하되 사구계(四句偈) 등에만 이르더라도 일체 세간·천인·아수라가 다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묘(塔廟)와 같이 하여 예(禮)를 짓고 위요(圍繞)하며 모든 꽃과 향으로 그 처소에 흠으리라”고 함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그 법의 요묘함을 베를어서 옮기지 않음이 없는데, 그것을 약(藥)에다 비유한다면 만 가지에 응하는 영단(靈丹)이라 하겠다. 그 때문에 부처님을 또한 대의왕(大醫王)이라 호칭하는 것이다.

그것으로써 몸을 다스린다면 재앙과 병이 소멸하고, 그것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면 번뇌가 없어지고, 그것으로써 산천토지(山川土地)를 다스리면 흉해(凶害)가 변하여 길리(吉利)가 되는데, 비보(裨補)의 설이 어찌 근거가 없다 하겠는가.

또 약속이란 것은 세상에 훌륭한 약이지만 병이 없는 자가 그것을 보면 씩은 흉과 같아서 비록 집안의 정원에 있어도 깨는 일이 없다. 만일 병이 있는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훌륭한 의사를 얻어 뜸을 뜬면 깊은 병이 홀연히 치유됨이 그림자나 메아리 보다 빠르다. 비록 만금(萬金)의 중함이 있다해도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 효과에 신기한 영

국(俄國=朝鮮)에 있어서도 폐지해서는 안된다. 만일 “선대의 왕이 치평(治平)의 정사(政事)를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이익없는 일을 하여 집안과 나라를 번거롭게 하였으니 우선 그것을 제거하여 그 길흉(吉凶)을 관찰함만 같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병든 사람이 그 의사가 치료하는 것을 꺼려하여 말하기를 “이 의사가 효과 없는 약을 허망하게 사용하여 나의 삶을 잔해(殘害)하니 우선 그것을 제거하여 그 낫는가 안났는가를 관찰함만 같지 못하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후세의 인군(人君)으로 선왕(先王)의 법기(法器)를 지키는 자는 선왕의 법도(法度)를 폐지하지 않고 옛날의 정치를 따라 진실하게 편다면 유신(維新)의 천명(天命)을 성취할 수 있으리니 이는 한 사람(王)에게도 경사로움이 있고, 역조의 백성들도 의뢰하는 바이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은나라를 살펴보는 것이 멀지 않고 하후(夏後)의 세대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대한불교 법성종



총 정 장 허 덕암

총 무 원 장 능 허 혜운

교 육 원 장 설 허 만원

문 화 원 장 락 허 혜운

총무원부원장 도 원

포교원부원장 보 안 현철

재 무 부 장 옥 천 류옥순

총 무 부 장 백 봉 성관

총 무 부 장 보 현 유옥임

중앙총회회장 일 허 혜승

규 정 원 장 조 허 혜운

교 육 원 부 원 장 범 정

포 교 부 장 보 현 조보현

교 육 부 장 일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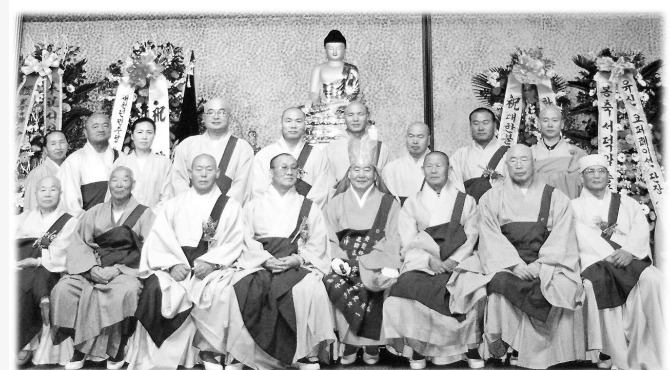
문 화 부 장 문 순재



총 정 장 허 덕암



총 무 원 장 능 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